

<에덴동산에서의 두 나무>

창세기 2:7-9 / 새찬송가 515 (통일 256) 눈을 들어 하늘 보라

1.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에덴낙원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로의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창3:22-24). 이 두 나무는 사람의 범죄 이후에 서로 상극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고후4:10,11).

2. 최후의 심판 때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책 ‘각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최후의 심판 때 각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생명책에 의해 심판 받습니다(계20:12-15).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창세기에서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계2:7). 즉 천국에 간다는 것인데 천국은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어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계22:1,2).

3. 왜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을까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창3:4,5). 그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삶을 매력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온 역사를 통틀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사람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선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 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을 보장해주는 자유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생명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이런 자유는 인본주의적 자유이며 끝없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하신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입니까? 생명을 위한 자유입니까?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하고 생명을 위하는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요8:31-36).

어려운 시대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내 선택의 자유가 아닌 생명을 얻는 자유를 예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삶을 돌아보며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충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실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의지로 내 뜻을 주장하며 내 선택이 옳다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선 나의 의지와 뜻과 선택을 내려놓고 그것을 고집했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이 임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립시다.